

보도시점 (전매체) 5. 7.(수) 14:00

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로,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주)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 스타트업 현장 대화」 개요

- [일시/장소] 5. 7.(수) 14:00 ~ 15:40 / 경기 화성시 수퍼빈 아이옴팩토리
- (참석자) 장관, 창업정책관, 기후 스타트업 전문기업, 수요기관 등
- (주요내용) 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② 기후테크 기업인 및 전문가 현장 대화
③ 기업 현장 투어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수퍼빈(순환자원 회수로봇), 와이파워원(무선충전), 비엔지파트너스(녹색금융 지원), 넷스파(재생 나일론), 파이퀀트(공기질·수질 분석),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 등 바이오 제품), 케빈랩(에너지 관리 서비스)

이번 행사는 지난 ‘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level-up)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 ①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 ②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③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 ④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①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既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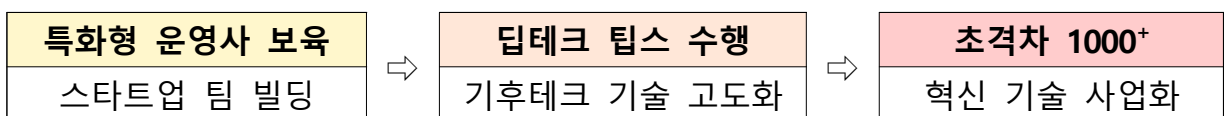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최대 2억원, 실증 최대 6억원(25~, 30억원)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참여기관) 65개 공공기관·연구원 등, (주요기능)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시제품의 실증을 위한 인프라 연계, (인센티브) 성능확인시 조달 혁신제품 평가 우대

- ②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팀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팀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초격차 스타트업 투자 이력이 있고, 참여 의사 희망한 VC, CVC 20개사로 구성

③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 빌게이츠가 기후기술 투자를 목표로 설립, 연간 약 10억달러, 40개 이상 기업에 투자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틱스-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지원사업 연계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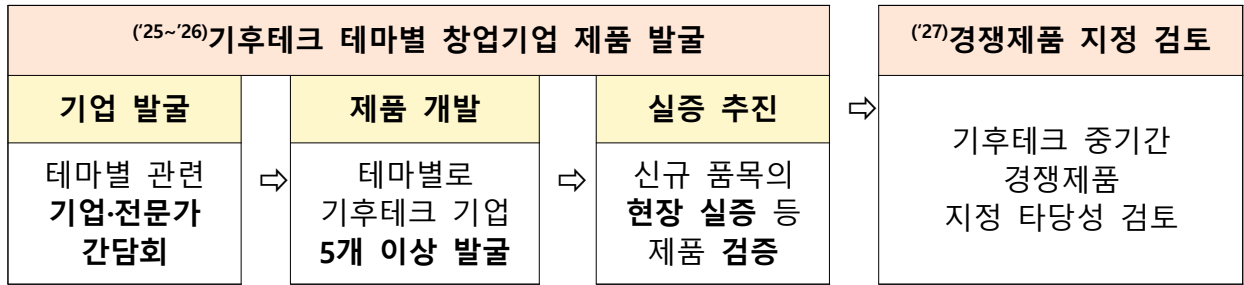
④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 △클린테크(재생에너지, 분산화) △카본테크(탄소포집·모빌리티)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저탄소 식품생산, 재배) △지오테크(탄소관측, 위성정보서비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하여,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26)하여 28조원('23년 기준)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 신산업 기후테크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연계(안) >



이 날 수퍼빈(주)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하여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수퍼빈 주식회사>



「아이엠팩토리 전경」



「공정무역 카페」



「플라스틱 실험실」



「네프론」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여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40)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044-204-7644)
			사무관	한인옥	(044-204-7681)
			주무관	서지숙	(044-204-768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 대화」 개최**□ **목적**

-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중기부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의지 강조 및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5. 5.7(수), 14:00~15:40(100분), 수퍼빈(주)*

*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 경기 화성시 우정읍 사기말27번길 87-41

- (참석자) 장관, 창업정책관, 중점 지원분야 스타트업 대표, 기후테크 관련 지원기관·전문가 등
- (주요내용) 수퍼빈(주) 공장 투어,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스타트업 애로 청취 및 지원방향 논의 등

□ **행사 일정(안)**

※ 전체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기업 소개(현장 투어) → 회의실 이동	수퍼빈
14:20~14:22 (2')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22~14:25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중기부
14:25~14:30 (5')	인사말	장관
14:30~14:40 (10')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창업정책관
14:40~15:35 (55')	현장간담회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5:35~15:38 (3')	마무리	장관
15:38~15:40 (2')	폐회	

※ 참석 기자 대상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책자 현장 배포

붙임 2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전략」 주요 Q&A

Q1 기후테크 혁신스타트업 레벨업 추진 배경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주요국들은 '15년 파리협정 체결 등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 * 인간 활동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1°C 상승, 해수면 상승속도 3배 증가
- 특히, 각국 (23, 137개국)은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 '18~'30년 중 40% 감축
- 최근 현재 기술력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혁신 기술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 現 상용 기술 및 초기 기술이 극대화 시 탄소 배출량의 약 65% 절감
-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특화전략이 필요

Q2 중점 추진 방향

- 중소기업 맞춤형 '2대 중점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
 - * 공정혁신, 자원순환(2대 분야) 실증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등
-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민관 다채널 활용 유망 창업자 육성, 우수 스타트업 유동성 공급 확대 등
-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 확장
 - * 글로벌 민간 펀드 연계, K-기후테크 글로벌 진출장벽 해소 등
- 기후테크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지원체계 정비
 - * 기후대응 규제자유특구 조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 등